

명성교회 교육관

Myeongseong Church Education Hall

전병직+고석균 / (주)코아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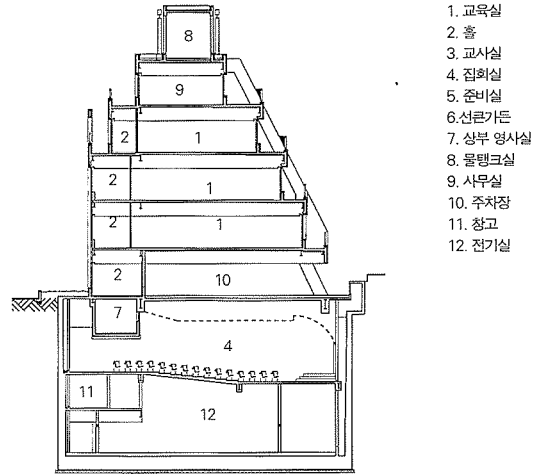
Designed by Jeon Byeong-Jig & Ko Seok-Kyun

도심속에서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대도시에서 종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종교건축을 접할때마다 늘상 가지는 의문점이다. 지하철5호선 명일역에서 내려 명일공원방향으로 약 10분정도 걸어가다보면 건물사이로 2개의 침탑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 지역 교회를 마주하는 첫 대면이다. 침탑을 계속 주시하며 걷다보면 교회의 거대한(?) 모습을 대하게 된다. 그 건너편으로 작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교회와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그렇다고 같지 않은 하나의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그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로서 갖는 이미지의 몇 가지를 접하게 된다. 이 교육관은 기존 본당과 어울려서 기능적 측면으로는 지역선교의 장으로써 교육 및 선교의 기능을 수행하며, 건축적 측면에서는 본당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조형적 양태에 대한 욕구가 개념의 시작이었다. 오랜시간에 걸친 수많은 대인과 스케치, 규모조정은 계속되는 의문, 즉 종교적 의미나 종교적 표현의 양식적 추구만이 과연 교회적(?) 건물인가라는 의문에서 반복되어졌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로써 새로운 접근에 대한 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종교적 해석에 따른 객관적 생각의 정립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속에 지역사회속의 적정한 자리매김은 중요한 개념의 이슈가 되었으며, 일조권이나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약조건의 해결과 2가지 재료의 단순한 대비를 통한 기존 본당과의 관계재정립은 조형적 의도로 표현되었다.

이제 본당과 교육관은 서로 마주보며 서 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궁금해진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종교와 도시, 특히 대도시 속에서 종교와 지역사회와의 미묘한 관계 및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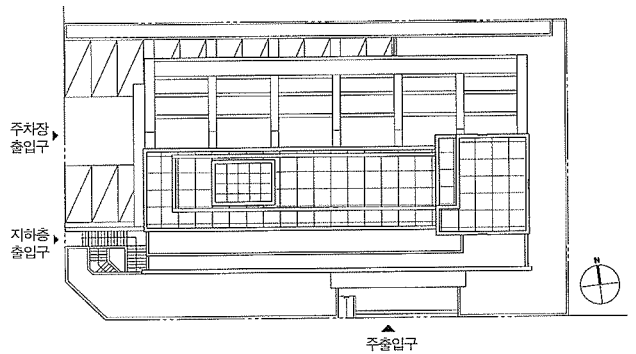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29-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종교 교육관)		
대지면적	1,158.30㎡	건축면적	637.98㎡
연면적	4,135.68㎡	지하면적	1,777.85㎡
건폐율	55.07%	용적률	175.67%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외부마감	화강석베너구이, 인도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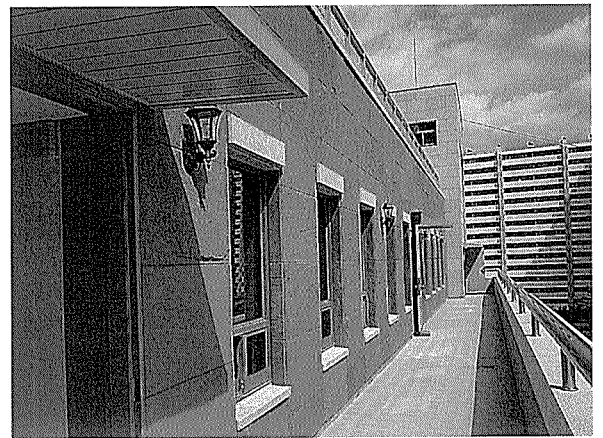


1. 교육실
2. 홀
3. 교사실
4. 집회실
5. 준비실
6. 선관기둥
7. 상부 영사실
8. 물탱크실
9. 사무실
10. 주차장
11. 창고
12. 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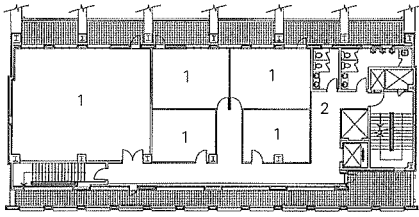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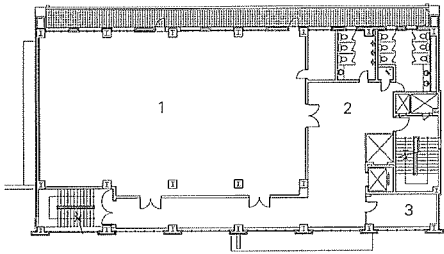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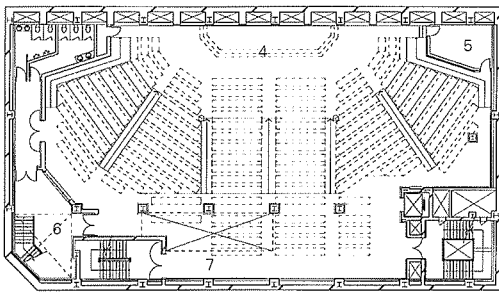
5층 복도와 외벽 상세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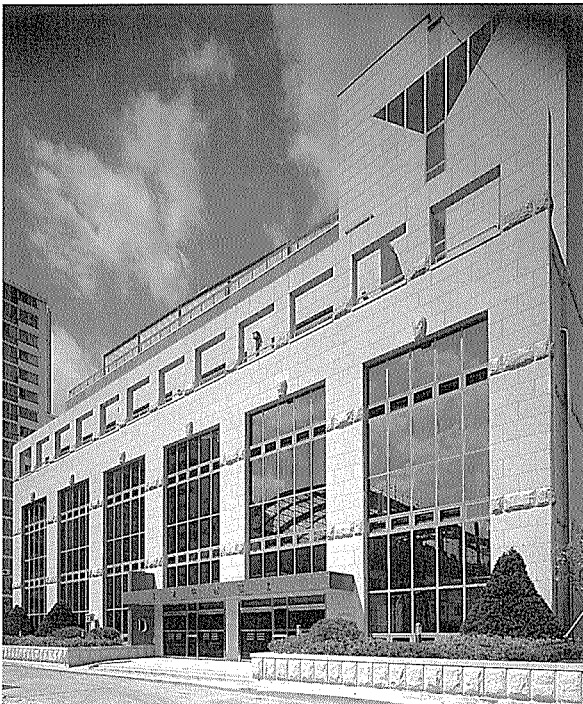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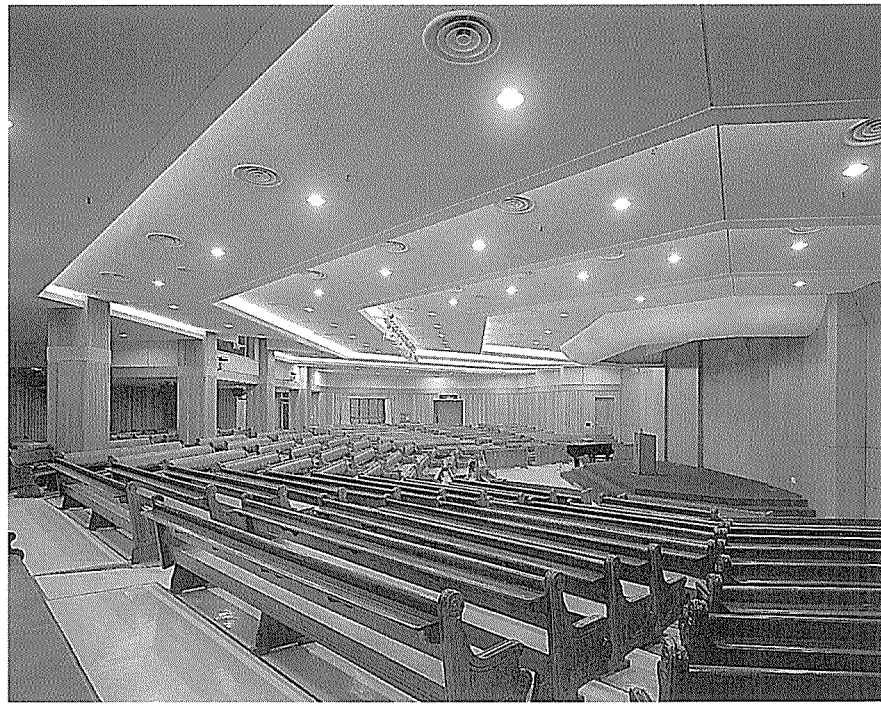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남서측 전경



전면 주출입구 전경



지하1층 집회실